

단군학연구 제40호

# 식민사학의 형성과 그 전개

장우순·문치웅

단군학회

2019.6

# 식민사학의 형성과 그 전개

장우순\*·문치웅\*\*

I. 머리말	III. 식민사학의 형성과 전개
II. 식민사학의 근원과 원형	IV. 맺는말

## 【국문초록】

일제의 식민사학은 근대 일본의 권력을 독점한 군벌의 침략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안된 역사 관련 논의였다. 시기별로 일선동조론, 조선정체성론, 만선사관 등이 군부의 요구에 따라 고안되었다. 하지만 이들 논의는 침략의 목적이 달성 되면 효용가치를 잃고 그 논의의 동력마저 소진되는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생산된 논의는 한국 및 중국에 이식되어 오늘날까지 역사왜곡의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제의 식민사학은 침략과 군국주의를 지향하였던 군벌이 만들어낸 근대 일본의 병영국가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 주제어 : 식민사학, 군벌, 근대사회, 군국주의, 병영국가

---

\* 홍익인간재단 책임연구원

\*\* 홍익인간재단 연구원장

## I. 머리말

일부 학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개별학자들에 대한 비판에 머물고 있는 일제 식민사학에 대한 한국사회 일반의 인식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당시 식민사학은 일본 근대권력의 정점에 있던 메이지정권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던, 개인의 학문적 양심이 개입할 공간이 거의 없는 정책 집행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민사학이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근대권력의 정점인 메이지군벌의 정치적 이해와 시기별 의제, 그에 짝하는 식민사학의 구체적인 주장과 논리, 당시의 국제적 역학관계가 유기적으로 파악되고, 해방 이후 한국에 남겨진 영향 역시 이들 관계를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본고의 핵심 전제는 메이지정권의 정체성 및 그들의 개입으로 일정한 방향성이 강제된 근대 일본 사회의 성격에 대한 이해이다. 하급무사출신으로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하였던 메이지군벌세력의 계급적, 정치적 성향과 이러한 이들의 필요에 의해 기획·창조된 천황을 상징으로 내세운 '파쇼적 병영사회=근대 일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에서 진행되었던 식민사학의 내면과 그 중의적 성격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일제의 식민사학은 일본 근대사회의 성격인 파쇼적 병영사회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역사학 분야의 톱니였던 것이다.

본고는 식민사학이 형성된 근본 원인이 일본 근대 권력의 정점에 있던 메이지군벌이 지향한 근대 일본의 성격 및 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찬탈한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확장과 군대의 유지가 필요하였고, 필연적으로 사회를 병영화하고 침략정책을 획책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학은 이러한 군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본고는 우선, 군